

■ 격돌! 4·9 총선 현장

# 1만여 포스코 유권자 선택 관심

## 광양

일찌감치 통합민주당 공천권을 따내고 본선에 대비하고 있는 현역인 우윤근 의원을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무소속 후보들이 추격하는 형국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 의원이 앞서고 있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평가지만,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 득표율이 14.4%로 광주·전남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점과 1만여명에 달하는 포스코 유권자들의 성향도 변수가 될 수 있어 관세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 의원은 주한 중국·러시아·독일대사관의 법률고문 등 세계화시대 전문 식견을 갖춘 외교통상 전문변호사로서의 경험과 국외의 정치 활동을 바탕으로, 광양항 및 주변 SOC 확충 등 지역 현안을 주도할 책임자임을 알리며 유권자들에게 다가서겠다는 전략이다.

우 의원은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각오로 유권자들을 만날 생각”이라며 “광양항 육성 및 광양만권 인프라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오만을 막을 수 있는 야당의 책임자로 유

### ■ 광양 출마 예정자

						
이름	우윤근	김광영	유현주	김원빈	정병훈	이육재
나이	50	70	37	41	59	52
소속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평화통일가정당	무소속	무소속
경력	17대 의원	전 공군사관학교 교수	민주노동당 성평등 감사	평화통일연합 중앙위원	(사)한민족행복찾기국민운동본부 대표이사	우주산업 대표

### 우윤근 “광양민권 인프라 확충·한나라 견제” 포부 김광영 ‘토박이론’...유현주·김원빈씨 등 맹추격

권자가 판단해주시길 바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광영 후보는 4번의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과 한나라당 후보로 나선 전력 탓에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김 후보는 “15년 동안 광양지역을 지켜온 사람으로 누구보다 지역 현안을 잘 알고 있다”면서 “광양항이 국내 항만 중심축으로

성장하는데 새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이끌어낼 집권 여당 의원이 필요할 때라는 점을 부각, 유권자들에게 선택받겠다”고 말했다. 민노당 후보로 나선 유현주 후보와 평화통일가정당 김원빈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표를 얻어낼지도 관심이사.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1강 구도 속 ‘소지역주의’ 변수

## 나주·화순

나주·화순 선거구는 한때 선거구 조정을 염두에 두고 후보자들이 대거 물리면서 치열한 내부경쟁을 벌였지만 현행 선거구 유지 결정에 이어 최근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공천자가 결정되면서 교동정리가 됐다.

현재까지 현역 의원인 통합민주당 최인기 의원에 맞설 뚜렷한 주자가 나오지 않아 최 의원의 1강(強) 구도 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 예견이다.

각 정당 공천 과정에서 선거구 조정을 염두에 둔 화순 출신 후보들이 대거 경쟁에 나섰다. 이는 감안하면 유권자 수는 5만5천여명으로 나주(7만8천여명)에 비해 적지만 화순 지역 표심이 한 쪽으로 쏠릴 경우 변수가 될 수 있어 소지역주의도 점쳐지는 상황.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현역 프리미엄과 당 지지도를 얹고 지난 4년 동안 지역 기반을 탄탄히 다져온데다 그간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집중 부각시킨다면 분선 승리도 무난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최 의원은 “혁신도시의 완성, 영산강 고대

### ■ 나주·화순 출마 예정자

				
이름	최인기	김창호	전종덕	김재곤
나이	64	45	36	43
소속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평화통일가정당
경력	17대 의원	한나라당 부대변인	민주노동당 전남도당 부위원장	평화통일가정당 전남도당 부위원장

### 최인기 “4년간 의정 활동 평가 받을 것” 재선 낙관 김창호·전종덕·김재곤씨 ‘주민과 1대1 접촉’ 나서

문화권 사업 등에 공을 들여온 만큼 사업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책임자임을 유권자가 알아주실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부대변인인 김창호 후보는 지역 구 구석 구석을 돌아다니는 등 주민과의 일대일 접촉을 늘리면서 한나라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데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 불모지인 호남 지역에 씨를 뿌리는 자세로 지역을 챙기고 있다”면서 “한나라당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전종덕 후보와 평화통일가정당 김재곤 후보도 유권자 공약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 김효석 원내대표 프리미엄...독주 채비


## 담양·곡성·구례

18대 총선에서 신설된 담양·곡성·구례 선거구에선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가 통합민주당의 단수 후보로 확정, 공천을 따냈다. 당초 강력한 경쟁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됐던 국창근 전 의원이 24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으며, 양성철 전 의원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김 대표는 담양·곡성·장성 선거구에서 16·17대 의원을 지냈으나 고향인 장성이 영광·함평 지역구로 편입됨에 따라 신설 선거구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김 의원은 7년 연속 국창근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뛰어난 조정력을 보이며 중립감과 인지도를 높여온 만큼 이번 선거에서도 승리를 낙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담양·곡성은 지난 8년간 저를 믿고 또 키워준 정치적 고향”이라며 “DJ이후 호남정치의 맥을 이어가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중진위원이 농촌을 지켜야 한다

### ■ 담양·곡성·구례 출마 예정자

					
이름	김효석	김문일	양우석	김갑환	김정범
나이	58	60	62	46	44
소속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평화통일가정당	무소속	무소속
경력	16·17대 의원	전 현대해상 호남지역본부장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건설업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겸임 교수

### 국창근 “총선 불출마”...양성철씨도 출마가능성 낮아 김문일 ‘MB와 인연’ 강조...김정범·양우석씨도 출마

는 의무감을 출마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에선 김문일 전 현대해상 호남지역본부장이 ‘현대맨’으로서 이명박 대통령과 30여년을 함께 일해 온 인연을 강조하며 표발을 갈고 있다. 무소속에선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정범 변호사가 도 전장을 던졌다. 평화통일가정당 후보로는 양우석 민주평통 자문위원이 뛰고 있으며, 김갑환(건설업)씨는 무소속으로 표발을 다지고 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박상천 “설욕” VS 진종근 “세대교체”

## 고흥·보성

박상천 민주당 공동대표가 막판에 공천을 신청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던 선거구다. 현역인 신중식 의원의 무소속 출마 여부와, 민주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철회하고 무소속으로 선출한 진종근 전 고흥군수의 선전 여부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 대표는 고흥 선거구에서 13, 14, 15, 16대 의원을 지낸 ‘정치적 토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박 대표는 “공천심사위의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여론조사 경선을 거쳐 공천을 받은 정통 후보라는 점과 함께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힘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종근 전 고흥군수도 출사표를 던졌다. 무소속으로 표발을 높고 있는 진 전 군수는 담양군수, 나주부시장 등을 역임한 전문행정가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진 전 군수는 “정치권도 새로운 사람으로 세대교체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

### ■ 고흥·보성 출마 예정자

					
이름	박상천	장귀석	박성근	진종근	박지환
나이	69	54	46	59	45
소속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평화통일가정당	무소속	무소속
경력	통합민주당 대표	보성군 홍보대사	2006~2007년 고흥로터리클럽 회장	전 고흥군수	서울 삼양교통버스 운전기사

### 현역 신중식씨 무소속 출마 여부 최대 변수로 한나라당 장귀석, 무소속 박지환씨도 출사표

이라며 “현장에서 농어민과 함께 생활해온 만큼 농어촌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또 지역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최적의 후보라는 점을 알리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박상천 대표의 공천반발을 요구하며 24일 현재까지 무소속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지만, 무소속 출마가 가시화될 경우 적지 않은 파괴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나라당에선 장귀석 보성군 홍보대사가, 무소속에선 박지환씨가 출사표를 내고 민심을 다지고 있다. /홍행기자 redplane@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수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8400 / 010-722-0100

11255구곡·9044